특집논문

박정희 시대와 젠더

김양선 |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

김영선 |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김우영 |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臨界)

- 손장순 작품을 중심으로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

김양선**

차례

1. 문제 설정–'문학'의 이름으로 다시 읽기의 필요성
2. 자기 계발과 인간–기계 되기에 대한 욕망과 감상적 향수 의식 사이
3. 문학하는 여성, 글 쓰는 여성되기의 실천
4.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 기억/기록물과 문학의 영토 확장
5. 결론–노동자의 앎(지식) 형성과 여성문학의 위치

<국문초록>

본고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에 잠복된 균열과 다양한 결, 문학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읽음으로써 제도화된 문학 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 기록물들을 (여성)문학(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는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공장의 불빛』 출간 전에 『대화』에 게재되었던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불타는 눈물 ,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이다.

2장 '자기 계발과 인간-기계 되기에 대한 욕망과 감상적 향수 의식 사이'에서는 수기에 드러난 교양과 지성을 쌓으려는 욕망, 자기 수양과 자기 계발을 위한 욕망에 주목했다. 절약과 저축, 자기 일의 영역에서 최고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여성문학학회 겨울 콜로키움 <박정희 시대와 젠더>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원고를 논평해 주신 백지연 선생님과 참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505-01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대학 부교수

가 되고 싶다는 다짐 내지 소망은 여성노동자가 산업화와 근대화가 요구하는 시계 시간, 그리고 인간-기계의 시스템에 포획되었음을 환기한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를 산업화된 공장의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 이들은 힘들 때마다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떠나온 농촌 마을에 대한 향수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띠게 된다.

3장 '문학하는 여성, 글 쓰는 여성되기의 실천'에서는 석정남과 장남수의 수기에서 독서, 특히 문학 작품 읽기가 문학소녀 취향의 낭만적 동경에서부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문학 작품 읽기는 이들이 글 쓰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이자 당대 노동 현실과 운동을 기억, 기록할 수 있는 내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4장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 기억/기록물과 문학의 영토 확장'에서는 수기가 공적 기록물로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문학과 문학 외부의 것을 가로지르고 섞는, 일종의 장르혼합 양상을 띠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기 텍스트 안에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극대본, 시, 대담, 선언문, 투쟁일지, 법정판결문 등이 삽입되어 있다. 한편 『서울로 가는 길』에 기술된 동료 여성노동자들의 자기 서사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삶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공공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형식적 시도들은 문학의 영토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는 여성이 앎과 글쓰기의 주체로 스스로 성장해 간 사례로 기록되어야 하며, 여성문학사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 여성노동자 수기, 자기 계발, 인간-기계, 향수, 글 쓰는 여성, 집단기록물, 자기 서사, 여성문학사

1. 문제 설정-'문학'의 이름으로 다시 읽기의 필요성

본고의 문제의식은 1970년대 (여성) 문학(사)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수기, 르포와 같은 소위 '비'문학적이라 알려진 글에 내장된 문학적인 것의 흔적과 글쓰기와 교양을 향한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70년대 여성문학은 6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성작가군과 숫자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그 폭이 넓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박완서와 오정희의 등장, 박경리의 『토지』 연재 시작 정도가 여성문학사의 의미심장한 사건에 해당한다. 주제나 제재 면에서도 당시 부상하기 시작한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 혼란 및 탐색, 낭만적 사랑과 환멸이 주를 이루었다. 70년대 문학 장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따져보면 더욱 그러하다. 70년대 문학은 호스티스 문학이라는 조롱 섞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여성 혹은 여성의 육체를 희생자, 탕녀나 유혹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그리기 일쑤였다. 70년대 노동소설은 황석영의 『객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문학사적으로 걸출한 성과를 낳았지만 여성의 재현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향을 띠었다. 남성/지식인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노동자는 여성성만이 극대화된 '여성'노동자 혹은 산업전사, 순교자로서의 무성적 존재인 여성'노동'자와 같이 극단적인 하나의 속성으로만 묘사되었다.[1)]

그렇다면 본격문학 대 저항문학이라는 구도를 형성했던, 70년대 제도화된 문학 장으로 수렴되지 않은, 하지만 문학사의 진폭을 확장하기 위해 재평가해야 할 여성들의 글쓰기는 없었을까? 서구의 경우 1906년과 1914년 사이에 여성운동은 깃발, 포스터, 우편엽서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팸플릿, 연설, 선언문, 자서전, 과학에 관한 소논문, 여성참정권을 다룬 소설과 희곡, 탄원서 등을 생산해냈다.[2)] 이런 변화는 여성이 자신들

1) 김경민, 「70년대 노동소설에 재현된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여성노동자」, 『대중서사연구』 2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5, 243~244쪽.
2) 리타 펠스키, 김영찬 ·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235쪽.

에게 거부되었던 쓰기와 말하기 양식을 전유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리고 그 성과 중 일부는 '여성문학 선집'에 등재되기도 하였다.[3] '성글고 거친' 글쓰기와 말하기로 문학제도 및 문학 장의 견고함을 외부에서 균열을 내고, 그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쓰기는 70년대 '수기'의 발흥으로 나타났다. 70년대 『대화』와 『신동아』 등의 매체는 수기나 논픽션 공모를 통해 노동자, 식모, 도시 빈민 등의 글쓰기 실천을 확산시켰다. 여성잡지 『여학생』, 『여원』, 『여성동아』 등에서도 기혼여성의 절약 수기, 여차장이나 식모, 여비서 등 다양한 직업군의 수기, 여학생의 사랑의 체험 수기 등을 공모, 게재하면서 잡지의 주요 판매전략으로 삼기도 했다. 물론 이 수기에는 당사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닌, 대필 의혹, 편집자의 각색 의혹 등이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수기는 기존 문학 장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가령 조세희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창작 동기를 밝히면서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이 자신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바 있다.[4]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맥락을 지렛대 삼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동과 삶을 말하고 기억하는 지점으로서, 그리고 70년대 여성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서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분석하고자 한다.[5] 특히 수기에 드러난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문화,

---

3) *Norton Anthology of Literature by Women* 같은 영미권 선집의 경우 '장르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편지, 정치적 저널리즘의 글, 선언문 등을 포함시켜 왔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문학 선집에 수기, 독자투고, 선언문, 일기, 격문과 같은 지금까지 비문학적인 글, 문학적 형상화가 떨어지는, 문학 이전의 글로 분류되어 온 여성들의 글쓰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4) 70년대 발표된 이문구와 박태순, 황석영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것들만 갖고는 안 되는 뭔가가 있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석정남의 『불타는 눈물』이나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같은 노동자 소설을 읽으면서, 또 주말이면 경인공단이나 구로동을 취재하면서 이런 것들을 놔두고 어떻게 그냥 지나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난장이의 꿈': 조세희 "난쏘공" 출간 30주년」, 『경향신문』, 2008.11.11. 기사 일부)

5) 사회학적 관점, 노동운동의 관점에서도 70년대 여성노동자의 등장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개발독재 시대, 총력전과 유신의 시대라 불리는 70년대에 여성은

노동조건,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산업역군' 혹은 '산업전사'라는 군사적인 용어로 호명된, 혹은 역으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로 각인된 획일화된 정체성을 거스르는 잠복된 욕망이 숨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수기는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공적인 기록물인 동시에, 문학과 글쓰기,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된 교양과 소비에 대한 양가적 욕망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수기에는 개발독재 시대 노동하는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일상 문화, 그리고 이들의 심성이 오롯이 녹아 있다. 본고는 수기의 다양한 결을 읽음으로써 70년대 제도화된 문학 장으로 진입하지 못 한 이 기록물들을 (여성)문학(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최근 70년대 문학/문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문학의 권위와 보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학(사)의 범주를 넓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정한 경향성 내지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문학제도, 문학성의 외부에 있는 서발턴의 글쓰기에 주목해 온 천정환은 노동자들의 자기 재현은 그동안 축적된 '대중지성'의 산물이며, 근대 부르주아의 문화적 향유체계로서의 문학(혹은 문학 내부)를 위협하는 힘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구호, 르포, 수기와 같은 거칠고 조야한 문자들과 글쓰기가 다른 문학(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6] 천정환은 리터러시와

산업전사로 불리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여성중심의 제조업 분야는 1975년까지 총 수출액의 70%를 차지하였고, 여기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는 1970년 36만 명이었던 것이 1978년 109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섬유, 의류 산업의 경우 노동자의 85%가 여성이었다.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211쪽)
노동조합에서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1970년 24.6%에서 1979년 34%로 증가했으며, 이런 여성조합원의 급증은 섬유, 의류, 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반(反)역사』, 이매진, 2005, 431쪽)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운동은 조합주의, 비/탈정치성으로 비판받았지만, 이는 80년대 지식인 남성 중심의 운동 진영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이기에 재평가의 여지가 있다.

6)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

학력, 문화자본의 차별적인 소유에 기반한 지적 격차의 문화(사)를 문제 삼고, 피지배계층 혹은 민중의 글쓰기를 추동한 교양과 리터러시의 재분배에 주목한다. 천정환의 관점은 70년대 노동자 수기의 문학사적 위상과 관련된 최근 연구를 촉발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문학제도이자 지적 위계 체계로서의 문학(내부)의 강고한 틀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학(성)과 문학(성) 아닌 것의 위계화, 영토화를 허무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지성과 대중교양의 관점, 하위주체의 말하기와 글쓰기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수기를 보겠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빠진 것은 노동자 수기가 지닌 실감에 기초한 분석, 내용이 지닌 복합적, 균열적 측면에 대한 해석이다.

가령 김성환은 70년대 노동자 수기를 이데올로기화된 담론의 구성체로만 파악하는 담론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역사를 형상화하는 능동적인 담론 행위로 볼 것을 제안한다.[7] 하지만 노동자 글쓰기의 주체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때 문인지 국가 주도의 모범근로자 수기와 노동운동 수기 모두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라는 공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예의 동일성 담론으로 회귀하고 만다.[8]

본고는 문학(제도)의 위계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글쓰기 주체의 실천성에 주목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되, 70년대 문학 장과 여성문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가 지닌 의미를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와 생활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나온 여성노동자-엄밀하게는 민주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구술

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4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1.

7)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제3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2, 357~359쪽.

8) 가령 다음과 같은 구절을 예로 들 수 있다.
"노동의 목적이 생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나은 삶, 그리고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획득해 간다는 점에서 노동 운동 수기의 실천은 모범근로자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김성환, 위의 글, 380~381쪽)

을 검토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왜 석정남의 '어느 여공의 일기'와 『공장의 불빛』에 나오는 글쓰기 주체의 목소리는 다른가? 『대화』지에 실린 '어느 여공의 일기'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 텍스트에 가깝다면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공장의 불빛』은 비록 민주노조결성 이후까지 다루고 있기에 후속작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느 여공의 일기'와 겹치는 부분마저 재가공을 거친 이차 텍스트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장의 불빛』은 '어느 여공의 일기'에서 볼 수 있었던 예의 실감이나 목소리의 복합성이 사라진 정형화된 플롯[9], 단일한 목소리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이 수기들이 자기서사(self history)로서 지닌 진정성은 무엇이고, 정형화된 플롯으로 수렴되면서 놓친 것은 무엇인가? 수기는 일종의 증언과 고백이다. 여기서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고백 주체의 진정성,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의 낙차, 기록되지 않은 것 이면에 감춰진 균열을 읽어내는 것이다. 본고는 '다시' '문학적'인 것의 위치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수기에 잠복된 균열을 최대한 읽고자 한다.

2장에서는 평범한 혹은 비천하기까지 한 노동자가 문학하는 여성, 글쓰는 여성, 소비 욕망과 성취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사적 기록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논의를 좀더 확장하여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수기 창작자들의 열망이 결과적으로 수기가 70년대 노동운동을 기록한 집단기억의 서사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점,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글쓰기 실험을 통해 여성문학(사)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9) 김원, 김성환, 신병현 등은 공통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빈농 출신의 배우지 못 한 한을 품고 가족의 생계 혹은 산업사회와 서울에 대한 동경, 배움에 대한 의지 때문에 상경해서 노동자가 된 후, 도시산업선교회나 야학을 통해 노동운동에 입문, 노조활동과 해고에 이르는 과정을 수기의 정형화된 플롯 내지 스토리텔링 구조라고 보았다.

2. 자기 계발과 인간-기계 되기에 대한 욕망과 감상적 향수 의식 사이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를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수기는 서울에 올라와 노동자가 된 동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위, 노동운동을 하게 된 이유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형화된 공식이 있다고 한다.[10] 이런 정형화된 공식에 대한 신병현의 다음 분석은 흥미롭다. 빈농 출신의 여성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무작정 상경하고 가족의 입을 줄이기 위한 식모살이나 학원 겸 직업소개소를 경유하여 친구의 권유나 유인으로 혹은 산업화에 대한 동경 심리로 공장에 취업한다. 이들의 글은 고향과 도시생활의 경험을 대비시키고, 전자는 구어적, 여성적, 사적인 언어에 의한 감정 표현 위주로, 후자는 문어적, 남성적, 공적인 언어에 의한 현재의 생활 묘사 위주로 쓰인다. 감정 표현은 진부한 죽은 은유나 상투어를 이용하는 문학 장르에 의존하는 반면, 현실 묘사는 군사주의 담론이든 노동운동 담론이든 공식 지배담론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11] 이와 같은 분석은 본고의 문제의식과도 통한다. 즉 여성노동자들의 수기에서 공식 담론과 감상적, 사적 담론이 혼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여성과 남성의

---

10) 모범근로자 수기를 연구한 김준은 '빈곤한 가정에서 출생했거나, 어릴 때는 유복한 가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돌연한 사망,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돌연한 몰락이 불행의 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학교 중퇴, 식모살이, 가족을 위한 희생, 근면 절약, 숙련 형성과 사측의 인정으로 인한 자부심, 배움에 대한 한(恨) 등이 공통 화소로 등장한다고 말한다.
김준,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이른바 '모범근로자'를 중심으로」, 『역사연구』제10호, 역사학연구소, 2002.
노동자들의 생활글 모음집인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에 실린 김경자와 박은순의 「나는 왜 노동자가 되었나」라는 글은 여성노동자 되기의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 사업 실패,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져야겠다는 책임감 등이 그 이유이다. 김영애의 「자기소리 좀 합시다」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 오빠와 동생 학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

11) 신병현, 「70년대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들과 노동자들의 글쓰기」, 『산업노동연구』 제12권 제1호, 2006, 한국산업노동학회, 214~215쪽.

담론, 과거와 현재 담론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틀로 볼 경우 국가 주도의 모범근로자 담론과 노동운동 담론 간의 동일성에 천착할 우려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경험을 다룬 부분을 참고하되, 『공장의 불빛』 출간 전에 『대화』 수기공모에 당선되어 게재되었던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불타는 눈물 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 여성노동자가 사춘기의 미성숙한 개인에서 노동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전근대적 심성과 근대화와 산업화가 개인에게 그야말로 내면까지 개조하기를 요구하는 자질 간의 교착, 기계인간과 감성적 인간의 교착 지점을 잘 드러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화』에 실린 석정남의 '어느 여공의 일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대화』 1976년 11월), 「불타는 눈물」(『대화』 1976년 12월)로 이루어져 있다. 전편 인간답게 살고 싶다」(1974년 1월 1일~12월 24일)와 후편 불타는 눈물」(1975년 2월 11일~1976년 8월 7일)은 '동일방직' 입사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수기에는 교양과 지성을 쌓으려는 욕망, 자기 수양과 자기 계발을 위한 욕망이 도처에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비욕망이나 게으름을 반성하고, 근면한 노동자, 교양과 지성을 갖춘 건전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반복적 언술이 눈에 띈다. '나의 인간됨은 좋지 않다'는 반성에서 시작해서 '앞으로는 좀더 교양과 지성을 길러 건전한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다짐(1974년 1월 5일), 월급을 적게 받자 결근을 많이 한 나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면서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내일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 오늘의 괴로움을 이길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1974년 2월 19일), "동생만큼도 돈을 못 버는 주제에 멋만 부리려는 허영심 많은 나 자신이 밉다. 좀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자.(1974년 3월 7일)"는 자책과 다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심지어는 실직 후 다방에 레지로 취업한 후에도 "어디서라도 부

끄러움을 타지 않는 일류 레지가 되어보겠다고"고 적고 있다.(1974년 11월 21일) 이처럼 '좀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건강한' 혹은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은 당시 국가가 유포했던 자기 계발 담론에 나 역시 포섭되었음을 뜻한다.

동일방직에 첫 출근(1975년 3월 3일)한 후에도 비슷한 언술 패턴이 반복된다.

1)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디리라. 부지런히 노력해서 회사에서도 존대받는 사람이 되고 돈도 벌어야지."(1975년 3월 3일)

2) 나는 이 회사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일까. 왜 이리도 일을 못하는지 정말 내 자신이 미워 죽겠다. (중략) 빨리 돈을 벌어 시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이며 이렇게 애써서 번 돈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말썽 없는 틀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나의 머리는 너무도 너무도 많은 생각들로 복잡해진다. (1975년 4월 16일)

3) 정숙이(동생)의 월급은 내가 다 써버렸고 월부로 해 입은 옷과 화장품 값도 물어야 하고 연탄도 사야한다. 서울에도 다시 한 번 다녀와야 한다.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내가 죽일 년이다. 돈을 모아야 하는데 쓰기만 하니,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허영. 군것질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1975년 10월 10일)

4)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생활엔 뚜렷한 생활신조가 없다. 닥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중략) 난 생각이 없는 갈대이다. 모든 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행한다. 마냥 게으르기 만한 나의 생활, 틀려먹은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집은 점점 가난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것질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한다. 언니가 이러니 동생이 무엇을 본받을까. 동생만도 못한 언니다. (1975년 10월 25일)

5) 천원이라는 거액을 오늘 정숙에게 빌려 썼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의 액수는 백50원. 8백50원을 뜻 없이 써 치운 이 병신같은 년. 가겟집에 들어가도 단 십원어치를 적게 먹으려던 내가 아닌가. (중략) 8백50원이면

우리가 열흘을 반찬을 해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내가 피로한 몸을 이끌고 8시간 동안 애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잘 것 없는 꽁무니집에 주어버린 것이다. (중략) 앞으로는 외출하지 않겠다. 누가 뭐라 해도 좋아. 지독한 구두쇠가 되고 싶다. (1976년 1월 26일)

6) 보너스 타면 핸드백 사고, 양산 사고, 선글라스 사고, 정숙이 구두 사고, 양념감 살려고 계획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돈이란 것 묘한 것. 아니 가장 더럽고 천한 년인지 놈인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남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뭐. 1976년 상반기 상여금에서 내가 쓴 돈은 실내화 한 켤레와 목걸이 하나. 반지 하나 산 것뿐이다. (1976년 6월 29일)

'회사에서 존대받는 사람', '지독한 구두쇠', '말썽 없는 틀보기'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70년대 산업 사회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욕망을 참고, 내핍과 근면, 성실한 개인-노동자를 모범적 인간형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런 나의 계발 의지는 항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이 회사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 "내가 죽일 년" "동생보다 못한 언니", 뜻 없이 돈을 쓴 "병신같은 년"이라는 자책 내지 자학으로 귀결된다. 공적인 장에서 성공과 자기 계발을 독려하는 시스템이 사적인 일상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일상과 소비, 욕망까지도 통제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5살에 상경하여, 몇 번의 실직을 경험한 나로서는 "가난에 허덕이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어다 드리고 싶지만"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20살 여성의 자잘한 소비 욕구조차도 충족할 수 없는 현실에 비관할 수밖에 없다. (1)~(6)의 예문들은 돈과 학력 등 기초적인 자원이 없는 젊은 여성이 자기 삶의 원천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어 나와 겪는 경제적 어려움, 돈과 소비에 대한 욕구,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서 오는 좌절감 등을 진솔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수기는 한편으로는 성공과 부를 향한 소박한 욕망을, 또 한편으로는 돈

과 소비 욕구가 충족되지 못 한 결핍감을 여과 없이, 양자 사이의 모순 그대로 드러낸다. 예문(3)과 (6)은 가난한 가족의 가계부양자이자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책임져야 했다는 희생자로서의 일방적인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의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월부로 해 입은 옷과 화장품 값, 핸드백, 양산, 선글라스, 구두, 목걸이, 반지와 같은 여성의 소비품목에 대한 구매 욕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낮은 임금과 당장의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소비적인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 여성(성)의 현시에 이끌렸음을 드러낸다.

한편 절약과 저축, 자기 일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다짐 내지 소망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산업화와 근대화가 요구하는 시계 시간, 그리고 인간-기계의 시스템에 포획되었음을 환기한다. 가령『공장의 불빛』에서 석정남은 동일방직의 근무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새벽 6시, 오후 2시와 10시, 3교대 작업을 하는데, 야근을 할 때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골에서는 날이 어두우면 잠자리에 들고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이 밝아오면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시간의 노예일 뿐 날씨의 변화라든가 밝고 어두운 게 상관이 없었다. 밤 12시나 1시 이렇게 깊은 밤에 일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한다. 시골에서 살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창 바쁘게 일을 하거나 밥을 먹다가도 지금이 한밤중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영 딴 세상에 와서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12]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시간 개념과 다른 공장에서의 시간은 노예의 시간, 이상한 세상의 이상한 생활이라는 이질성으로 작가에게 다가온다.

아래 예문은 공장에서의 인간-기계 시스템이 사적인 일상 공간과는 다른 속도와 규율체계를 강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12) 석정남,『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14쪽.
이후 인용문 표시는『대화』수기는 연월일로,『공장의 불빛』은 쪽수만 기재할 것이다.

> 양성공들은 실잇기 이외에도 걸음 걷는 연습도 하였다. 나이가 스무살 이상씩 먹어가지고 걸음마 연습을 한다니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양성공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많은 기계를 빨리빨리 돌아다니며 이상이 없도록 살펴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동작이 빨라야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1분에 140보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양성공들의 걸음마 연습은 바로 1분에 140보 걷기 연습인 것이다. 끊어진 실을 빠른 속도로 이어줄 것과 빨리 걸을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양성공들은 꽤 오랫동안 이 연습을 되풀이하여야만 하였다. (16~17쪽)

1분에 15개의 실을 이어야 하고, 1분에 140보를 걸으면서 틀보기를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와 시간에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스무살 이상씩"이나 된 성인이 마치 어린이처럼 걸음마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이 인간-기계라는 산업화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새로 태어나는, 소위 개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신의 신체를 산업화된 공장의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은 힘들 때마다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이들은 전근대적인 삶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다. 병든 생활과 도시, 돈에 대한 미련과 푸른 숲과 흙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 고향 사이의 대립은 노동 운동에 투신한 이후의 기록에 초점을 맞춘 『공장의 불빛』이나 『빼앗긴 일터』보다 『대화』지에 수록된 '어느 여공의 수기'에서 더 두드러진다. 정현백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의 탈향 동기는 지식인 엘리트들의 분석과는 다소 다르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나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농촌의 가부장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도시를 동경하고 고향을 탈출하는 적극성을 띠기도 했다.[13] 하

13) 김원 역시 가족과 가부장제로부터의 탈출, 자립을 동경하는 여공의 욕망은, 국가, 가족, 공장이라는 지배적 담론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토대로 여공을 둘러싼 담론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말고, 유동적이고 내부적 균열이 착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전근대적인 의식에서 근대적 삶으로 완전히 존재 이전한 것은 아니다. 떠나온 농촌마을에 대한 향수와 함께 전자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의식에 묶여 있었다.[14] 이들은 상경은 했으나 결혼을 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배움의 꿈을 이뤄 학생이 되겠다는 애초의 꿈을 대개는 이루지 못 한다. 이 꿈을 대체할 희망을 찾지 못 한, 공장과 기숙사에 고립된 채 노동조합이라는 또 다른 자매애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나기 전, 이들의 좌절과 소외감은 역으로 고향, 공동체, 어머니에 대한 향수로 귀결된다.

> 1) 언제나 아쉬움과 미련이 남은 우리 엄마가 살고 계시는 내 고향, 엄마와 함께 천천히 걸어서 마늘밭까지 왔다. 마늘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이 봄에 엄마와 함께 들에 다니던 오, 즐거운 추억이여. (1974년 4월 6일)
>
> 2) 102호에서는 넓디넓은 아름다운 하늘의 엄숙한 광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중략) 연한 은빛의 하늘가에 미인의 그린 눈썹처럼 상큼한 구름조각이 노닐고, 그 아래엔 검은 나무 그림자가 귀신의 형태를 흉내내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 하늘과 그 산 위를 따라 자주 가면 어디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나의 집이 있을 것 같다. 내 손이 한없이 길게 뻗칠 수 있다면 저 하늘 턱에 살짝 얹어 '엄마'하고 불러보련만. 아니 목이 길게 늘어난다면 저 하늘 너머로 넘어다보며 우리집을 바라보련만. (1974년 6월 5일)
>
> 3) 내일 이맘 때에는 집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 듯이 느껴진다. 오늘 하룻밤만 더 일하면 된다. 노루목 강의 맑고 푸른 물에서 실컷 수영을 해야지. 그리고 촌놈들도 만나서 강가 모래밭에서 춤추고 노래하여 마음껏 휴가를 즐겨야지. (1975년 8월 12일)

김원, 앞의 책, 253~254쪽.

14) 정현백, 「여성노동자와 글쓰기-세기 전환기 독일과 70~80년대 한국」, 『여성사 다시쓰기』, 당대, 2007, 247~248쪽.

위 예문들은 가족, 어머니, 고향을 '~이여', '~하련만'과 같은 감상적 어투로 호명한다. 이런 감상성은 앞서 정현백의 지적처럼 전근대적, 전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여물로 볼 여지도 있고, 사춘기 소녀의 상투적 감수성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다 앞서 자기 계발 의지와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자신을 힐난하는 즉자적이고 직설적인 문체까지 더하면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 이면에 '소녀', '딸', '노동자'라는 다양한 정체성이 갈등과 각축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관성이 없는, 불안정한 내면과 문체는 기존의 문학 개념으로 볼 때는 미숙한 글쓰기의 산물이다. 본격적인 습작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숙한' 문학소녀의 글쓰기인 것도 어느 정도 맞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 한다면 예의 전근대적 세계에서 근대적 세계로, 정(情)의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급격하게 존재 이전을 '당한' 여성의 불안과 소외감을 드러낸 징후적 글쓰기로 볼 여지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떠나온 농촌 마을에 대한 향수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신병현이 고향에서의 경험이 구어적, 여성적인 감정 표현을 구사하지만 "진부한 죽은 은유나 상투어"를 사용했다고 분석한 것과는 다르다. 예문 (1)과 (2)에서 볼 수 있듯 엄마와 가족, 고향은 동일시되며, 향수(nostalgia) 의식은 파란 마늘밭, "연한 은빛의 하늘가에 미인의 그린 눈썹처럼 상큼한 구름조각"과 같은 시각적 표현으로, 혹은 예문(3)의 '노루목 강의 맑고 푸른 물'로 구체성을 띠게 된다. 무엇보다도 고향 마을에서나 맛 볼 수 있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기억은 죽은 은유와 상투어가 아닌 감각적인 묘사로 실감을 획득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아직 여름은 멀었는데 무척이나 과일이 먹고 싶다. 시큼시큼하고 속이 빨갛게 익은 복숭아, 새큼하고 달짝지근한 물과 함께 오득오득 씹히는 딸기며 설탕에 재워서 냉장고에 한시간쯤 얼려둔 토마토, 아삭아삭하는 참외며,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박, 모두들 좋아하는 호박이며, 생각만 해도 침이 도는 포도, 터질 듯한 푸른 색의 청포도, 과일이란 과일은 다 좋

> 지만 역시 난 오이를 좋아했었다. 시골에서 엄마가 정성들여 기르신 오이덩굴, 오늘처럼 비가 온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빗물에 깨끗이 씻긴 오이들이 주렁주렁 가지에 매달려 있다. 그때의 그 신선한 냄새, 푸르른 빛. (중략) 그땐 정말 야성녀였다. 난 지금 무언가가 막연히 그리웁고 그 신선한 여름 과일의 맛이 입에 스민다. (1975년 4월 26일)

비 내리는 날 기숙사에서의 외로운 생활 끝에 떠올리는 시골 풍경과 맛에 대한 기억은 도시에서의 척박한 노동환경이나 주거, 음식과 대비된다. 작가는 '시큼시큼', '새큼하고 달짝지근', '오득오득', '아삭아삭'과 같은 맛과 관련된 형용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오이의 청신한 색과 냄새를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제도에 길들지 않은 '야성'적 삶에 대한 그리움은 공장에서의 인간-기계의 삶과는 선명히 대비된다.

요컨대 각성된 노동자의 시각으로 기술된 『공장의 불빛』과 이 일기의 비균질성 간의 낙차는, 오히려 그 낙차 때문에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존재조건을 적실하게 드러낸다.

3. 문학하는 여성, 글 쓰는 여성되기의 실천

> 어디쯤 가니 그곳엔 밭도 아닌 곳에 무성한 호박덩쿨이 자라고 있었다. 지붕처럼 넓적한 호박잎 속에 연초록색을 띈 애호박이 숨어 자라고 있었다. 호박 넝쿨을 보면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다. 우리 엄마는 호박을 기르는 데 꽤나 정성을 들였다. 뒤뜰에 심어 놓고 어린 우리들이 소꿉놀이 할 때 혹시 호박모를 뽑아내기라도 할까봐 항상 아카시아 가시가 달린 꼬챙이로 담장을 쳐주곤 하셨었지. 덩굴손이 뻗고 제법 자라기 시작하면 줄기를 곧게 뻗은 미루나무에 묶어 똑바로 올라가라고 지붕이나 대추나무 위로 길을 가르쳐 주었다. 꽃이 피면 벌들이 날아들어 꽃가루로 목욕을 하기에 바쁠 때 개구쟁이 오빠는 심술궂게도 꽃잎을 꼭 오무려 벌을 감옥에 가두듯 하고 줄기

> 를 꺾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는 휙휙 돌려 벌이 어지러워 정신이 없을 때 침을 빼어 내고는 가지고 노는 것이다. 잘못하여 벌에게 쏘여 눈 곁에 주목만한 혹이 달렸던 오빠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시고 꽃이 떨어졌다고 매우 안타까워 하셨었지. 비가 와서 대추만 하게 맺힌 호박이 떨어지거나 하면 어머니께선 결코 귀찮아 하진 않으셨다. 어쩌면 자신의 정성어린 보람의 열매가 좀더 눈에 띄게 되게끔 찾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1975년 6월 30일)

석정남의 수기에 나오는 위 예문은 앞 장에서 언급했던, 떠나온 농촌 마을과 가족에 대한 향수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띤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외롭고 빈핍하고 불행한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는 자연풍경에 대한 세부묘사로 생생하게 포착된다. 이 장을 위 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아래 예문 (1)의 "나의 일생도 책으로 엮어 보아야지"라는 소박한 글쓰기 욕망이 진정성을 발하는 대목이 위와 같은 자기체험과 공동체의 기억에 기초한 실감을 통해, 더 나아가 '수기'라는 자기이야기(self history)의 형식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일기의 한 대목에 불과하지만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나 계절의 변화를 상투적으로 기술한 당시 여성지들의 수필에 비해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화』 수기, 그리고 『공장의 불빛』과 『빼앗긴 일터』의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독서, 특히 문학 작품 읽기로 표출된다. 석정남의 수기에서는 가난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건전한' 다짐, '허영심'으로 지칭되는 소비 욕망에 대한 자책 뒤에 이런 삶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교양과 독서, 문학과 글쓰기의 욕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 1) 나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종일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었다. 나는 진정으로 문학가가 되고 싶은데 모든 환경은 너무나 엉뚱하다. 내가 이런 공장 구석에서 썩게 될 줄을 그 누가 알았더냐? 문학가, 화가, 내가 문

학가나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내 소망 중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중략) 누구든 나를 좀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돈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팔아먹든 어쩌든 나의 취미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소설가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일생도 책으로 엮어 보아야지. (1974년 3월 1일)

2) 오늘은 종일 시를 썼다. 헬만 헷세, 하이네, 윌리엄 워즈워드, 바이런, 괴에테, 푸쉬킨. 이 얼마나 훌륭한 이들의 이름인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그들은 훌륭하다. 아, 나도 그들의 틈에 끼고 싶다. 비록 화려한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함께 걷고 싶다. (중략) 나같은 건 어림도 없다. 내 최고의 실력을 다해 지은 이것도 결국은 보잘 것 없는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 감히 내가 저 위대한 이들의 흉내를 내려 하다니. 이거야말로 짐승이 웃고 저 하늘의 별이 웃을 것을 모르고... 아무 지식도 배움도 없는 나는 도저히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없다. 이대로 그날 그날 천하게 밥이나 처먹으며 사는 거지. 그리고 끝내 돼지같이 죽는 거지. (1974년 4월 26일)

3) 난, 어떻게든 영원히 살아있는 '나'가 되고 싶다. 아니 죽어서도 살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단 몇 작품이라도 좋으니 문학작품을 남기고 싶다. 남이 읽고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 줄 그런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앞으로 험하디 험한 먼 곳에 있는 행운을 잡기 위하여 죽도록 노력하리라. (1974년 12월 21일)

4) 우선 새해의 꿈은, 모든 면에 좀더 적극적인 정남이가 되자. 이것이다.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을 벌겠다'라는 시시한 생각은 하지 않겠다. 물론 절약하는 마음을 게을리 하겠다는 건 아니다. 생활에도 충실하고 그러면서 무슨 책이든 책을 많이 읽겠다.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쓰고 또 나대로 뭐 좀 써보리라 생각한다. (중략) 새해엔 좀더 지금보다 똑똑한 내가 되어 모든 일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 (1974년 12월 23일)

5) 회사를 다니기가 좀 힘이 들지라도, 친구들이 오기 싫어할 정도로 거리가 먼 곳, 그리고 약간 넓은 방을 얻고 싶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매일 혼자서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글을 쓰든가 할 것이다.(1976년 1

월 28일)

6) 어젯밤 예숙이가 자신의 시 2편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요즈음은 흔히들 그런 문법으로 시를 구상하는가 보다. 주간지가 잡지책 같은데도 보면 어려운 문자로 된 시들뿐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렵다. 소월 시처럼 마음의 나래를 달아 준다든가, 하이네 시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바이런의 시처럼 자신의 심정을 절실히 나타내지도 않았고, 괴테의 시처럼 신비롭지도 않다. 시라고 하면 으레 어려운 말로 가상해서 쓰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의미는 없으면서 어렵기만 해.

예숙의 시는 깊은 의미는 없으나 그런대로 깨끗한 시라고 생각하며 느낌 이상으로 칭찬해 주었다. 나는 시를 좋아만 했지 어떤 시가 잘된 것인지 아직 모른다. 어느 한 구절이 맘에 들면 좋아하곤 했으니까. 며칠 전에 사보에 응모한 원고 역시 두렵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대표작 『베니스의 상인』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느낌을 썼는데, 그 작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중략)

문학에 조예깊은 벗을 가지고 싶은데, 나의 주위에선 힘들어. <한국문학>이라는 월간지를 읽어야겠다. (1976년 2월 27일)

이외에도 수기에는 비가 오는 고독한 풍경을 보고도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자신을 탓하며 '개발할레야 개발할 수 없는 문학적인 미개인'인 자신의 자질을 절망하는 글도 있고, 봄의 풍경을 보면서 '글벌레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하는 글도 있다. (4)에서 보듯 생활에 충실하고, 똑똑한 나로 자신을 개발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출세와 돈의 세계에서 벗어나((1)의 '돈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단 몇 작품이라도 좋으니 남이 읽고 기억해 줄 문학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이를 위해 자기만의 공간(예문 (5))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15] 노동과 돈, 밥과 '돼지'의 세계(예문 (2))와 계산가능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와 소설, 독서의 세계 사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16] 내

가 읽는 문학 작품의 목록은 헤르만 헤세, 하이네, 윌리엄 워즈워드, 바이런, 괴테, 푸시킨의 시, 『베니스의 상인』, 『안네의 일기』 등 서양 명작들이다. 이런 독서 이력을 자신의 계급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부르주아적 교양에 대한 동경이나 당시 국가가 독려했던 문학-교양을 통한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예문 (6)에서 예숙의 시를 읽고 평가하는 부분이나 사보에 독후감을 응모한 이력으로 보아 단순한 교양 따라잡기 식이 아닌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시나 세계명작을 비평하는 안목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17]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에도 비슷한 이력이 나온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 진학을 못 한 채 농사를 돕던 나는 틈틈이 순정소설, 만화책, 『부활』, 『테스』 등의 책을 들고 다니며 읽었고, 아침 햇살에 피어난 박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시인이 되고 싶다'는 주제넘은 꿈

15)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은 버지니아 울프의 유명한 선언인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를 떠올리게 한다.

16) 이에 반해 노조 활동과 파업, 해고와 복직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공장의 불빛』에서는 동일방직 입사, 기숙사 생활이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도시산업선교회의 클럽활동이 오히려 부각된다. 기숙사 생활 중 여가시간을 주로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것으로 소일했으며, 이때 읽은 시 목록(하이네의 낭만시, 소월의 진달래, 윤동주의 별헤는 밤)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이때 시 읽기는 "조장도 반장도 담임도 잊을 수가 있었고 실잇기도 걸음마도 별 것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 굴욕적인 노동의 시간을 잊고 나의 감정, 즉 개인성을 지킬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진정한 나만의 휴식과 꿈을 안겨주는 16시간을 위하여 8시간은 죽어주는 것이다. 8시간 동안은 나의 이성도 감정도, 필요하다면 오장 육부까지도 이곳에 빼놓고 들어가면 그만이다.")
석정남, 앞의 책, 18쪽.

17) 석정남의 수기는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과 더불어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노동자 수기와 생활글쓰기의 활성화를 촉발했으며, 80년대 노동문학 이론의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석정남의 글에서 당시 국가 주도의 교양 목록과 일치하는 서구 명작이나 순수문학이 주로 언급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없다고 해서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석정남과 장남수가 노동운동에 눈뜨기 전 읽었던 고전 명작 목록들을 통해 당시 생활 세계와 분리된 위로부터의 교양 함양 프로젝트, 문학-지식의 식민성이 계층과 직업, 취향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을 꾸었다고 술회한다.[18]

앞서 석정남의 수기가 문학소녀 되기에 대한 열망에 상당 부분 서술을 할애하고 있는 데 반해 원풍모방 노조의 투쟁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남수의 수기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책읽기와 문학작품 읽기가 부각된다. 수기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의식을 갖게 된 계기는 『대화』에 실린 석정남의 「불타는 눈물」,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을 읽고 나서라고 나온다.

> 석정남의 「불타는 눈물」,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등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불타올랐다. 그것은 정말 내게 새로운 눈뜸, 새로운 사회의식에의 계기였다. 마치 내 각막에 붙어 있던 어떤 막이 벗겨지고 보다 깨끗한 세계, 보다 치열한 세계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과도 같은 충격과 경이의 체험이었다. (중략) 또한 평화시장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회복하라"를 외치며 분신자살했다는 고 전태일씨의 얘기도 내게는 새로운 인식과 깨우침을 주었다. 나는 내가 석정남이며 유동우이며 전태일이란 것을 느꼈다.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몇 번이나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른다.[19]

즉 장남수에게 책(수기) 읽기란 수기의 저자들과 노동자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고 사회의식에 눈뜨게 하는 앎의 통로였던 셈이다. 원풍모방에 입사한 직후 장남수의 꿈은 석정남과 유사하게 "열심히 주산을 배우고 영어를 외우며 빨리 급수를 따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여 "공부를 통해 이 생활을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기 계발과 성공의 미망은 금요기도회에 나가고, 노조에서 빌린 사회과학서,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깨지게 된다.[20]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원에서 배운 도구적

---

18)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10~11쪽.
19) 위의 책, 24~25쪽.
20) "『노동자의 길잡이』, 『자랏골의 비가』, 『객지』, 『쌈짓골』 등을 열심히 읽으며 맨날

인 지식이 아니라, 책과 문학을 통해, 같은 동료노동자의 글을 통해 현실에 눈 뜨면서 그녀는 독자적인 앎/지식의 체계를 소유하게 된다.

석정남과 장남수의 수기에서 문학 작품 읽기는 문학소녀 취향의 낭만적 동경에서부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하이네, 바이런, 혹은 괴테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 '신비로운' 시를 좋은 시의 준거로 삼고, 자신의 '초라한 문장력'을 부끄러워하던 석정남은 수동적 읽기 행위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생활세계와 감정을 '수기', 즉 자기 이야기의 형식으로 씀으로써 "남이 읽고 언제까지라도 기억해 줄 그런 글을 쓰고 싶다."(예문 (4))는 열망을 성취한다. 즉 서구 중심, 부르주아 취향 중심의 식민화된 문학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인 읽기-쓰기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글쓰기는 항상 그 '작가성'을 의심받았다.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 했던 이 여성들이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관념, 지식인들이 대신 써주었을 거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다.

> 우리가 끌려간 곳은 동대문 경찰서였다. 조사란 다음이 아니라 연극 대본을 만든 사람을 묻고 있었다.
>
>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시나리오가 뭔대유?"하고 되물으면 "너네들 연극할 때 미리 연습을 했을 거 아니야? 연습할 때 보고 했던 종이에 써진 것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 말이야."
>
>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시나리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으며 그저 우리가 겪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공책에 적어서 했던 것뿐이라고 버텼다.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구에게 대본을 받았느냐고 자꾸 묻더니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자, 하

문학전집이 어쩌고 괴테가 어쩌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위의 책, 28쪽)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도서문고에 꽂혀 있는 책은 자생적인 앎과 토론의 원천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긴 장님이 문고리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21]

위 예문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들은 시나리오의 작가를 묻는 질문에 "겪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공책에 적는" 행위라고 답한다. 문학 장르의 엄격한 경계를 해체하고 체험에 기반한 글쓰기의 진정성을 소환함으로써 문학의 권위, 나아가서는 배운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다는 통념을 해체하는 셈이다.

이들의 수기 쓰기는 같은 계층의 노동자들에게 각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또 다른 글쓰기 실천을 촉발하는 일종의 선순환 작용을 하였다. 지식과 문학은 남성-지식인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깨기도 했다. 남성 지식인 중심의 문단 제도와 경합하여 온 70년대 (여성)문학(사)가 이들의 '수기'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1) 석정남, 앞의 책, 217쪽
비슷한 사례는 석정남과 함께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추송례의 증언에도 나온다. 이들은 해고된 뒤 김영태 전국섬유노조 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인물을 뿌리는데, 이 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불어라'라는 말을 들었다.
"아무리 내가 썼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사실은 정남이와 함께 쓰고, 다듬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에게 정남이랑 둘이 썼다고 하면 정남이를 잡으러 갈 것 같아 무조건 내가 썼다고 했지요. 그런데 조사하는 형사들은 내가 썼다는 걸 믿어주지 않았어요. 방직공장 여공이라고 하니까 완전 무시를 하고 생각이란 것을 할 줄 아는 인간으로 봐주지를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펜과 종이를 주면서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비틀어버리는 고문을 받아 손가락이 퉁퉁 부어 볼펜이 잘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반가워서 종이와 볼펜을 빼앗듯이 받아서 '구치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숨도 안 쉬고 단번에 써서 주었어요."
박수정, 「노동과 삶에서 글을 길어 올리는 사람-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추송례」, 『여자, 노동을 말하다』, 이학사, 2013, 87~88쪽
이런 경험을 통해 추송례는 "노동자가 글을 쓸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자의 주체적 앎과 글쓰기를 되찾아온 예라 할 수 있다.

4.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 기억/기록물과 문학의 영토 확장

『서울로 가는 길』, 『공장의 불빛』, 『빼앗긴 일터』와 같은 수기는 한 노동자가 빈농의 딸로 태어나 노동운동에 투신하기까지 정치적, 사회적 자아로 성장해가는 개인의 기록이지만 도시산업선교회에서의 의식화→노조 결성→해고→복직투쟁 과정을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기억이자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있다. 석정남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불타는 눈물」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양과 소비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보다는 가난과 가족적 정서에 더 이끌리는 개인의 기록에 가깝다. 반면 『공장의 불빛』에서 이와 같은 기록은 상당부분 축소되고 민주 노조 결성, 사측의 노조 와해 공작, 명동성당에서의 단식 농성, 부당해고와 복직투쟁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계엄령과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정치사적 사건, 전국 단위 노조(한노총)의 어용성, 도시산업선교회의 역할, 클럽 등 소모임 활동, 야유회 등 의식적인 노동자 문화를 함께 서술함으로써 공적 장에서 이루어진 정치, 노동사, 사회사적 사건이 어우러지는, 70년대에 대한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일화학에서의 노조 활동, 해고와 복직투쟁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한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 원풍모방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동일방직 똥물사건, YH 사건, 여성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기록한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 역시 70년대 여성노동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기록물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수기들이 공적 기록물로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문학과 문학 외부의 글 양식들을 가로지르고 섞는, 일종의 장르혼합 양상을 띠었다는 점이다. 즉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극대본, 대담, 선언문, 투쟁일지 등이 수기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 가령 『공장의 불빛』 '무대에 올린 동일방직 사건' 장에는 연극의 형태를 빌려 동일방직 사건을 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연극 대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빼앗긴 일터』에는 『공장의 불빛』의 연극대본과 유사하게 노동자들이 직접 창작한 탈춤 대본과 탈춤공연 전 고사를 지내면서 낭독하는 제문 등이 나온다.(157~166쪽, 175~177쪽, 230~232쪽) 이 역시 노동현장이나 투쟁현장의 현장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적 기록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작가 장남수가 원풍모방에서 해고되고 나서 00마벨이라는 다른 공장에 취업 후 쓴 시 '1730원짜리 인생'이나 공장에서의 삶과 퇴사 기록을 담은 '공단일기'는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등을 일기와 시의 형식을 빌려 가감 없이 그리고 있다. 가령 '하루 일당 1730원/한 달 내내 전선을 감고/접착을 하고/본드를 붙이고/납땜을 해도/우리들의 월급봉투는 5만 5천원/하루 세 시간 연장근무를 해도/도저히 살기가 힘든/누렇게 뜬 우리의 얼굴들'과 같은 구절은 노동현실을 직설적인 시어로 고발한 80년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에 실린 작품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가 하면 '8장 빼앗긴 일터'는 남성 비노조원들에 의해 자행된 원풍모방 노조원 폭행 사건의 경위를 본격적으로 적기 전에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작가의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를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22]

이처럼 『빼앗긴 일터』는 원풍모방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록인 동시에, 이 기록을 여실히 전달하기 위해 탈춤대본, 제문, 시, 일기, 노동자들끼리 주고받은 편지와 쪽지, 그리고 수기 말미의 증언(1), (2)와 같은 재판기록까지 수록함으로써 장르혼합과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 허물기를 실천하고 있다.[23]

---

22)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날은/악마들이 점찍어둔 날/번쩍이는 쇳덩어리로 갑옷 입고/신대방동 565번지에 무덤을 파던 날
그날은/악마의 창녀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악마의 시녀들이 총칼을 들이대고/예리한 날로 도려 낙인을 찍던 날
그날은/노동조합 대표자가 감금을 당하고/열일곱 시간 무릎 꿇려 폭력으로 고문받고/죽음으로 맞서다가 화곡동에 버려진 날 (중략)
그날은 /일천 구백 팔십 이년 구월 이십 칠일 (203~204쪽)

23) 80년대 노동문학의 현황과 과제를 짚는 논쟁적 글들은 대부분 70년대 문학을 논하면서 수기와 르포를 언급해 왔다. 이 중 김도연의 「장르확산을 위하여」는 장르는

송효순의『서울로 가는 길』‘수련회’ 장에는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를 가서 자기 고향 소개, 자기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송효순의 수기 안에 동료 여성노동자들의 자기 이야기/역사(self-history)가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운명이 엇비슷하다는 것도 이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 ‘내가 걸어온 길’(102쪽)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이 장에는 옥순이와 재숙의 생애사가 나오는데 스토리라인이 유사하다. 옥순이의 생애사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가 생계 전담, 언니들이 서울에서 공장생활, 집안 전체 상경, 중학교 중퇴 후 가발공장 시다, 대일화학 입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으로 요약된다. 재숙의 경우 아버지의 무능력, 집안 상경 후 부모님이 막노동으로 생계유지,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 초등학교 졸업 후 봉제공장 취직, 어머니의 죽음, 공장일과 가사일 겸함, 대일화학 입사, 산업선교회 활동 후 해고로 요약된다. ‘순희 언니’ 장에 나오는 순희 언니의 생애사도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가 생계 전담, 중학교 2달 만에 중퇴 후 식모, 직물 공장, 양장점 시다, 버스안내양 등의 일을 하다 언니를 따라 상경, 평화시장 시다와 미싱사,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결핵을 앓다가 대일화학 입사, 척추결핵 진단 순으로 기술된다. 장남수의『빼앗긴 일터』‘5.함께 배우며’에도 노동조합 대의원 교육에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한결같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농촌 출신” 딸들은 노동조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 문학개념도 수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본고의 관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도연은 “굳이 장르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민중)의 일상정서를 반영하는 표현방식은 모든 예술장르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247쪽)고 보았다. “주변 장르를 통한 여러 방식의 형식 실험, 때로는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창출”(260쪽), 기존 장르의 변형, 장르간의 만남을 통한 총체적 문학양식의 실험이 대중성 획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70년대 수기가 지닌 민중문학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노동문학 자료집, 문집, 팸플릿, 회보 등이 삶의 문학으로서 지닌 잠재성에 주목한다. 호소문, 진정서, 선언문, 성명서 역시 ‘전단문학’이라고 명명하면서 새로운 장르들로 보고 있다.
김도연,「장르 확산을 위하여」, 김병걸・채광석 편,『80년대 대표평론선2: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239~266쪽.

합 경험을 통해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144쪽) 자매애에 기반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수기’의 사전적 정의가 “자신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이라면 이 수기 속에 기입된 동료 여성노동자들의 자기 서사는 다른듯하지만 비슷하기에 서로를 보완하면서,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삶의 전형성을 구축하는 공공성을 획득한다. 더욱이 동료가 한 말을 송효순, 장남수가 ‘되받아 쓰는’ 이 말하기-쓰기의 네트워크는 구술성이 문자성으로 전화하는, 혹은 구술성과 문자성이 서로 호환하는, 문자문학의 오랜 전통에서 잊힌 양식을 되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서로 몸을 맞대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눈물’로 맺어진 연대의 경험, 밥과 국을 나누고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경험, 즉 ‘밥’과 ‘눈물’의 공동체는 여성(성)의 자질과 이어지는,[24] 궁극적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민중적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결론-노동자의 앎(지식) 형성과 여성문학의 위치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는 여성이 앎의 주체이자 생산자로, 글쓰기의 주체로 스스로 성장해 간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들의 글은 지식인 여성의 작가되기 내지 작가성의 권위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도 의미가 있다.[25] 수기들은 글쓰기를 열망했으나 문학 장에 진입하지 못한, 작가로서의 정체성보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은 주체

24) 김원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기숙사와 소모임을 통해 서로간의 생애사(life history)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동질감을 형성했다고 본다. 이는 자매애에 기초한 ‘유사가족’의 형성인 동시에 한국 여공문화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다.(김원, 앞의 책, 688~689쪽) 소모임내에서 이루어진 고백행위는 치유의 제의이자 치료의 장,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689쪽)

25) 김양선,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2쪽.

들에 의해 씌어졌다. 문학 이전의 증언과 고백에 가까운 이들의 글쓰기는 역사와 현실을 젠더적으로 전유하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여성노동자 수기가 70년대 여성문학(사)의 영토를 확장하는 실천적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확인하되, '성글고 거친' 글쓰기에 잠복된 모순적인 양상들을 읽어내고자 했다. 그 결과 노동운동에 대한 집단 기억/기록물과 문학의 영토 확장이라는 의미 외에 이들의 글쓰기가 지닌 '의외의' 혹은 '잉여'의 영역이 여성 노동자들의 존재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즉 자기 계발과 성공에 대한 욕망과 인간-기계 되기를 강요하는 지배 질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중첩되고 갈등하는 지점들이 있으며, 이 지점들에 대한 진솔한 서술, 전근대적인 향수 의식이 실감을 획득함으로써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실현되는 '의외의' 효과를 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 투신 및 노동조합 결성 이후 경과를 기술한 부분의 목적의식적, 보고적 언술은 수기가 지닌 공적 기록물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글쓰기, 즉 글쓰기의 젠더적 특성을 담보하지 못 해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 결성과 해고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여성노동자들의 자매애와 연대감, 분노와 눈물의 수사학 역시 젠더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과 눈물, 세부묘사의 실감을 여성적 글쓰기로 환원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지만 남성과는 다른 '차이'의 글쓰기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탈춤과 마당극 대본을 함께 쓰고, 도시산업선교회가 마련한 수련회에서 자기 이야기를 구술로 서사화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여성노동자가 공감과 연대의 네트워크 안에서 스스로 말하고 쓰는 행위를 실천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와 국가 이데올로기가 강제한 '교양 있는 여성' 되기를 거부하고 노동과 투쟁의 현장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문학 교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 한 대안적인 문화/문학 교양으로서의

수기의 의의, 수기가 지닌 장르혼합적 성격이 80년대 노동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글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나보순 외.『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돌베개, 1983

석정남.『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송효순.『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8

장남수.『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한윤수 엮음.『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마음향기, 2005

2. 단행본

김 원.『여공 1970-그녀들의 반(反)역사』. 이매진, 2005. 192~259쪽, 412~492쪽, 636~690쪽.

김도연.「장르 확산을 위하여」. 김병걸 • 채광석 편.『80년대 대표평론선2: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239~266쪽.

박수정.「노동과 삶에서 글을 길어 올리는 사람-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추송례 .『여자, 노동을 말하다』. 이학사, 2013. 76~109쪽.

전순옥.『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211~258쪽.

정현백.「여성노동자와 글쓰기-세기 전환기 독일과 70~80년대 한국 .『여성사 다시쓰기』. 당대, 2007. 247~248쪽.

리타 펠스키. 김영찬 • 심진경 역.『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235쪽 .

3. 논문

김경민.「70년대 노동소설에 재현된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여성노동자 .『대중서사연구』2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5. 217~248쪽.

김성환.「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한국현대문학연구』제3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2. 353~386쪽.

김양선.「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여성문학연구』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30쪽.

김 준.「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이른바 '모범근로자'를 중심으로 .『역사연구』제10호. 역사학연구소, 2002. 53~99쪽.

신병현.「70년대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들과 노동자들의 글쓰기 .『산업노동연구』제12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06. 191~222쪽.

이정희.「여성노동자의 경험 읽기-1980년대 초반의 여성노동수기에 나타난 성(사랑), 가족, 노동」.『여성과 사회』15호. 한국여성연구소, 2004. 131~153쪽.

정종현.「노동자의 책읽기 .『대동문화연구』86집. 성대대동문화연구원, 2014. 73~121쪽.

천정환.「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민족문학사연구』4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1. 224~254쪽.

Abstract

Memorizing/Recording about Laborers in 1970's through Woman's Voice

- Expansion of Women's Literary History and Women Laborer's Memoirs

Kim, Yang-Sun

This paper tries to read the latent cracks and various aspects in the memoirs on the 'literary' position. And through this trial, I want to define these memoirs which have not entered into the institutionalized literary field as the one of women's literary history. The texts are as follows.; Seok Jeongnam's *The Light of Factory*, 'I want to live as human', 'the burning tears' published in *<Daehwa(Dialog)>*, Jang Namu's *Deprived Workplace*, Song Hyosoon's *The Way to Seoul*.

In chapter 2 'Between the desire for self improvement, being a man-machine and sentimental nostalgia', I notice that there are desire for culture and intelligence, the desire for self-development and self-discipline. The frugality, savings, and the wish for best worker means that this girl worker has been trapped the watch time of industrialization era and the man-machine system. However, whenever she forces her body to equalize in the industrialized plant system, she reminded of hometown and miss her mother. Through the emotional and sensual portrayal, the longing for mother and nostalgia for a rural village takes on concreteness.

In chapter 3 'being literary women, practice of writing women', Seok Jeongnam and Jang Namsu's reading, especially reading

literary works did various roles from romantic longing toward literature to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s laborers. The act of reading literary works motivated them to do writing practice, and to memorize and record laborer's situation and movement.

In chapter 4 'the collective memory/documentary about laborer movement and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literature', I notice that the memoirs mixed the literature and its outside writings like drama script, statement, fight journals, court judgments, etc. These writings try to mix various sub genres to maintain the objectivity as the public record, and to convey specific messages. The self-history narratives of fellow women workers on *The Way to Seoul* obtain a publicity, complementing each other's narratives, showing the typicality of women workers' life in 1970s. These formal attempts have resulted in extending the territory of literature.

In conclusion, women laborer's memoirs in 1970s should be recorded as a case that the women growed themselves as subjects of knowledges and writing. Their memoirs can be evaluated that expanding the territory of women's literary history.

Key words : Women Laborer's Memoirs, Self Development, Man-machine, Nostalgia, Writing Woman, Collective Record, Self History/Narrative, Women's Literary History

■ 본 논문은 2016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